

벽돌이 그린 관계와 소통

서혜영展 10. 13 ~ 11. 4 장흥토탈아외미술관

이번 토탈아외미술관에서 열린 서혜영전은 자연과 인공조명, 공간 배분이 잘 이루어진 전시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탐구하여 작가-작품-공간-관객이라는 설치미술의 '관계'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끌어낸 전시다. 집·공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최소 단위인 벽돌은 여기서 시각적 기호로서만 등장한다. 이 기호는 면으로 작용, 입체가 되기도, 비디오의 가상적 이미지로 합류하기도 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의로 작용한다.

1층 아래쪽 전시장은 단순 프레임으로 된 유리 위에 사각의 기하학적 형태가 실크 스크린되어 검은 선의 기호로만 타이핑된 벽에 일렬로 나열 설치되어 있다. 이 전시 공간은 약간 어두워 사각 박스엔 불이 켜져 있고, 이 그림들은 불빛으로 인해 입체적 구조가 드러나 평면과 평면이 교차되어 실제의 입체감을 제공한다. 평면의 원근법이 주는 팬터지와 실제의 공간 깊이의 공간적 유희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지는 시간적 공간으로 합류되어 벽을 가장한 큰 프레임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실제와 가상의 혼란스러움으로 빠져들게 한다.

1층 아래쪽 어두운 전시공간은 벽 모서리를 경계로 두 대의 빔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만나고 있고 카세트에서는 일상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미지와 실제가 혼란스러운 넓고 빈 공간에서 인물들은 혼자 앉아 있거나 혹은 출구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카메라를 쳐다본다.

작가는 이런 일상적 반복에서 출구와 이미지 속에 투영된 빛으로 된 다른 공간으로의 탈출을 시도한다. 자연광선이 들어오는 천장이 높은 공간을 이용해 벽돌로 프린트된 얇은 천으로 집을 지었다. 기호로만 작용되는 이미지에서 현실의 집으로 탈바꿈한 공간은 얇고 부드러운 천을 투과해 들어오는 빛과 더불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딱딱한 단위의 사각형은 천의 자연스러운 질감으로 인해 흘러내리고 유동적이 되어 바람·공기·빛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을 건축한다.

2층 전시장은 벽면과 모서리에 천으로 제작된 집과 미술관의 구조를 응용한 이미지를 검은 테이프로 그려놓았다. 실제공간에 가상적 이미지로 팬터지라는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혜영 전은 공간을 선과 면의 브릭으로 디지털화시켜 평면·입체·시간·현실과 가상의 세계로 조합하고 분해해 겹겹이 얽혀져 있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투영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 김미진 · 영은미술관 부관장

